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2, 557-576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이 지 은
숭실대학교 / 박사과정생

신 선 임†
숭실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어떠한 다차원적 집단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집단별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소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Mplus 8.6을 통해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분석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집단별로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잠재프로파일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이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개의 유형은 확고한 동기집단, 저하된 동기집단, 갈등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 분류에 따른 결과기대와 낙관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확고한 동기집단, 갈등 동기집단, 저하된 동기집단 순으로 결과기대와 낙관성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탈북청소년, 잠재프로파일 분석,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

† 교신저자 : 신선임,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Tel: 02-828-7209, E-mail: sunimshin@ssu.ac.kr

www.kci.go.kr

최근 통일부의 북한 이탈주민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통일부, 2021),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추이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5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2년 이후 입국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2020년 COVID-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등의 영향으로 입국 인원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입국 인원이 33,788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21)에 따르면, 협의적 측면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지칭하며,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광의적 측면에서 북한 이탈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북한 이탈주민인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또는 부모가 북한 출신으로 중국 및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범위가 확장된 원인 중 하나는 북한 이탈과정에서의 자녀 출생과 관련 있다. 북한 이탈 초기에는 탈북청소년들의 탈북유형이 '단독 탈북'이 많았으나 점차 '가족동반 탈북'으로 변화하였고 탈북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탈북민의 20%를 차지하였다(주승현, 2020). 최근에는 부모가 북한 이탈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청소년(65.5%)이 북한 출생 청소년(38.8%)보다 많았으며(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조현섭, 채경희, 2019). 이는 학교급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급의 경우, 제3국 출생 학생이 80.6%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급의 경우, 중국 및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52%를 차지하는 등 북한 이탈 청소년의 집단 내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탈북청소년들은 북한 이탈 및 남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탈북청소년의 적응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탈북청소년은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소속집단의 해체와 재결합의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다(주승현, 2020).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도지완, 황명진, 2020), 다문화 청소년과 달리 '탈북'이라는 이주 배경은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특히, 제3국에서 난민 또는 이주민으로 살다가 입국한 경우, 일반적인 이주민 특성과 동포라는 특성이 맞물려 국가 정체성 형성에 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최대석, 조은희, 2010). 이들은 남한의 새로운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라는 과도기적 발달과업으로 인해 이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정재경, 강민주, 2019).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과 연구는 드물다. 이에 해외 이민자 대상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 해외 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는(Levitt, Lane, & Levitt, 2005) 어린 아동 이민자의 가족 갈등보다 청소년 이민자의 가족 갈등 위험이 더 높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www.kci.go.kr

에서(Kim, Chen, Wang, Shen, & Orozco-Lapray, 2013) 이들은 가족 세대 간 인식의 불일치로 인해 미국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민 온 가정의 청소년들과 탈북청소년들은 유사한 특징이 있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례로, 이민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어려움은 탈북청소년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언급되고 있다(양혜린, 고윤정, 김옥수, 박연미, 이혜란, 2017; 주승현, 2020). 이는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져 2018년 기준 남한 정규 학교에 재학했던 북한이탈 청소년 중 남한 출신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은 약 4배,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비율은 약 3배 높았다(김지수 등, 2018).

이처럼 탈북청소년들의 특수한 환경적 맥락은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 선택 · 준비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들은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거나 중국에서 불법적 신분으로 일을 하거나 북송 가능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기 어려워한다(정영선, 2018). 또한, 탈북청소년은 북한의 억압적이고 명령적인 체제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정진곤, 2011). 심지어 탈북청소년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입학 초반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공 선택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조영아, 전우택, 2004). 이러한 진로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의 어려움은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 및 인적 네트워크 능력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로탐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정다운, 김병수, 2019).

탈북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시기는 진로탐색과 결정에 중요한 시기이다. Super(1990)의 진로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미래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며,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잠정적인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대학진학과 사회생활 적응에 이르기까지 진로발달을 돕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와 스마트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등 주요 일자리의 변화 역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준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이러한 변화는 탈북청소년의 진로준비,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를 발달시켜야 한다.

개인의 내적 동기가 활성화됨으로써 더 많은 자기 동기력이 발휘되는 것을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며(Deci & Ryan, 1985), 진로에서는 이를 진로결정자율성이라고 한다. 진로결정자율성(Guay, 2005)은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준비행동 동기의 자율성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서 자율성 수준에 따라 나눈 네 가지 유형 동기 즉, 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 외적 조절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

www.kci.go.kr

워서 결정하는 것이고,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고,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과 불안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고,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은 누군가가 내가 이 결정을 하도록 원하거나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보상, 칭찬, 인정 등을 얻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진로결정자율성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박고운, 이기학, 2007; 이예진, 이기학, 2010; Hirschi, Lee, Porfeli, & Vondracek, 2013; Vondracek, Ferreira, & Santos, 2010).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율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다양한 적응 관련 변인 즉, 과업수행, 심리적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Gagné & Deci, 2005)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신경증 등 다양한 진로 및 심리적 적응 관련 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Guay, 2005). 고등학생 역시 자율성이 진로장벽지각을 낮추고, 진로태도성숙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백연옥, 심혜숙, 2015). 이는 진로발달에 있어 동기의 자율성이 진로적응 관련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구 집단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군집분석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이영주, 최해연, 2020; Paixão & Gamboa, 2017). 진로결정자율성의 하위요인을 군집 분석한 연구(이영주, 최해연, 2020)에 따르면, 자율동기집단과 의욕집단이 경력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결정동기를 군집 분석한 연구(Paixão & Gamboa, 2017)에서는 높은 자율적 동기집단, 약간 높은 통제적 동기와 낮은 자율적 동기집단, 모든 동기가 높은 집단으로 세 개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약간 높은 통제적 동기와 낮은 자율적 동기집단이 낮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였고 나머지 두 집단은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어떠한 동기집단 양상을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 동기 수준에 따른 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의 억압적이고 명령적인 체제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정진곤, 2011) 이러한 특성은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에서 낮은 독립성을 나타냈고 북한 사회 체제의 집단주의 등으로 자기 주도성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허은영, 강혜연, 2007). 이는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서 외부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여 내재화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청소년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자기 조절하고 내재화하느냐는 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진로정보를 어떻게 내재화하는지는 자율성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이는 탈북청소년의 진로상담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편, 결과기대는 자신이 특정 행동을 수정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예를 들어,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연

www.kci.go.kr

봉, 사회적 지위, 좋은 복지, 부모의 기대충족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런 기대는 힘든 취업과정을 견디고 취업준비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이같이 취업준비라는 진로 행동을 수행하고 따라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결과기대이며, 이는 특정 행동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기대의 이러한 측면은 스스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결정자율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결과기대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명확하게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중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데(Lent, Brown, & Hackett, 1994) 이는 높은 진로결정자율성을 가진 개인이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uay, 2005). 안타깝게도 결과기대와 진로결정자율성 간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에 따라 결과기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탈북청소년 집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개입을 위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을 선택해왔으나, 요즘 청소년들은 고용 불안정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Herr, 2001). 이러한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낙관성을 강조하였다. 탈북청소년들에게 우연학습이론의 낙관성은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사람들이 우연적 기회를 인식하고, 만들어가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제접근기술 중 특별히 다섯 가지 기술, 호기심, 인내, 유연성, 낙관성, 및 위험감수행동을 개발해야 한다(Mitchell et al., 1999). 이 중 낙관성(optimism)은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며 가능성이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Mitchell et al., 1999).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경험하고 이를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 낙관성이 높은 탈북청소년은 긍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겠지만 낙관성이 낮은 탈북청소년은 정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새로운 경험은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은 진로정체감이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Diemer, 2007; Patton, Bartrum, & Creed, 2004) 진로장벽도 덜 인식하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높은 낙관성은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전주연, 송병국, 2014), 높은 낙관성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높은 진로결정수준을 보였다(이순희, 손은령, 2013).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낙관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 동기 수준에 따라 어떤 양상의 집단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집단양상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및 낙관성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째,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진로결정자율성 수준 양상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21)에 명시된 정의와 「청소년기본법」(2020)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따라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탈북청소년으로 서울, 경기, 부산지역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남녀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연구 참여를 의뢰하고 동의한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 안내를 하였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동의서와 설문을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4.2%), 즉 설문지 뒷면 문항에 전체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진로결정자율성 각 문항마다 4개의 질문에 각각 답변하지 않고 한 개만 표기한 경우의 자료를 제외하고 71부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국문 설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단어와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설명에도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설문을 중단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24명(33.8%)과 여자 44명(62%)이었고,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3명(4.2%)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평균 연령은 18.97세(SD=2.94)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4명(5.6%), 2학년 11명(15.5%), 3학년 54명(76.1%)이었고, 학년을 표기하지 않은 2명(2.8%)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측정 도구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uay(2005)가 개발한 척도(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 CDMAS)를 한주옥(2004)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 척도는 진로 결정과 관련된 8가지 행동을 제시하는 문항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 구하기,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찾기,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등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각 8개 활동에 대한 네 가지 동기를 포함하여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태환(2013)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내적 동기의 신뢰도 계수 .90, 확인된 조절의 신뢰도 계수 .87, 내사된 조절의 신뢰도 계수 .89, 외적 조절의 신뢰도 계수 .94 였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내적 조절의 신뢰도 계수 .92, 확인된 조절의 신뢰도 계수 .91, 내사된 조절의 신뢰도 계수 .92, 외적 조절의 신뢰도 계수 .94이었다.

www.kci.go.kr

진로준비행동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한 박완성(200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변인은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결정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4가지 요인, 총 2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는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분야의 책이나 전문서적, 잡지를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생각해 보고 확정했다' 등이다.

박완성(2003)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Betz와 Voyten (1997)이 개발하고, 양난미(2006)가 국내 대학생에 적합하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결과기대와 진로결과기대로 구성되었으며 학업결과기대 4문항, 진로결과기대 5문항이다. 문항의 예는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내가 선택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로(직업)와 관련된 길을 안다면, 더 나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양난미(200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Mitchell 등(1999)의 계획된 우연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김보람(2012)이 대학생용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를 강희양(2020)이 청소년용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계획된 우연 척도는 다섯 가지 요인 즉 유연성, 지속성, 모험성, 호기심,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47개 문항이고, 유연성 12문항, 지속성 11문항, 모험성 9문항, 호기심 10문항, 낙관성 5문항이다. 이 가운데 낙관성 5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예는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진로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강희양(2020) 연구에서 유연성, 지속성, 모험성, 호기심, 낙관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1, .85, .88, .82,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낙관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6.0과 Mplus 8.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통계적인 적합도를 확인하여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해석 가능성을 파악하여 최종 집단을 선택한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Muthén & Muthén, 2000). 정확한 잠재집단의 수는 3가지 통계지수로 결정한다(권재기, 2011). 먼저, 정보기반

www.kci.go.kr

지수로 AIC, BIC, 및 saBIC로 각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02). 다음으로, Entropy 지수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오류가 적어 정확한 값으로 여긴다. .8이상의 값이면 차별성 있게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Muthen & Muthen, 2000). 마지막으로, 우도비 통계적 검정방법인 LMRLR과 BLMRT로 모형을 비교하는데 LMRLR과 BLMRT는 잠재집단의 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p* 값이 유의한 확률값(p<.05)을 가질 때 k개의 잠재집단을 선택하고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노언경, 홍세희,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진로결정자율성을 활용하여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동기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확인된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집단 간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사후검정(*Scheffé*)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r=.34$, $p<.01$), 결과기대($r=.56$, $p<.001$), 낙관성($r=.45$,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준비행동은 결과기대($r=.40$, $p<.01$)와 낙관성($r=.42$, $p<.01$)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인 내적 조절($r=.30$, $p<.05$)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확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1-1	1-2	1-3	1-4	2	3	4
1. 진로결정자율성	1							
1-1. 내적 조절	.56***	1						
1-2. 확인된 조절	.43***	.37**	1					
1-3. 내사된 조절	.67***	-.12*	.06	1				
1-4. 외적 조절	.66***	.12*	-.22	.55***	1			
2. 진로준비행동	.34**	.30*	.10	.13	.25	1		
3. 결과기대	.56***	.47***	.40**	.15	.35**	.40**	1	
4. 낙관성	.45***	.53***	.52***	.006	.08	.42***	.61***	1
평균	103.52	28.72	32.68	23.95	19.16	59.19	31.68	21.36
표준편차	15.64	6.66	5.29	7.15	6.77	14.68	4.94	3.30
왜도	-.22	-.72	-.15	-.32	-.19	-.06	.11	-.32
첨도	.30	1.62	-.95	.38	-.60	.28	-.50	-1.10

주. *$p<..05$. **$p<..01$.***$p<.001$

www.kci.go.kr

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과 결과기대의 관계에서 내적 조절(r=.47, p<.001), 확인된 조절(r=.40, p<.01)과 외적 조절(r=.35, p<.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내사된 조절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인 내적 조절(r=.53, p<.001)과 확인된 조절(r=.52, p<.001)은 낙관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내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측정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값이 |2|, 첨도의 값이 |7|을 넘지 않으면 정상분포를 나타내는데(Finch, West & Mackinmon, 1997), 본 연구에서는 왜도가 -.72 ~ .11, 첨도가 -1.1 ~ 1.62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집단 수를 늘려가면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AIC, BIC, saBIC 값은 작아져서 잠재집단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이며 Entropy는 집단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2개 집단일 때 높고, 4개와 3개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LMRLRT는 3개의 집단이 적절하였고 BLMRT는 4개의 집단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적합도 지수와 집단에 속한 비율을 고려하여 집단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집단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선 집단별 진로결정자율성의 각 하위 요인의 평균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

표 2.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기준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833.533	1807.947	1789.648	1784.262
	BIC	1862.947	1848.675	1841.689	1847.617
	saBIC	1821.994	1791.97	1769.233	1759.409
모형비교	LMR(p)	<.05	<.01	0.4897	0.1626
	BLMRT(p)	<.001	<.001	<.001	0.3333
분류질	Entropy	0.873	0.1332	0.4897	0.904
분류율 (%)	1	10명 (14.1%)	10명(14.1%)	11명(15.5%)	1명(1.4%)
	2	60명(85.9%)	28명(39.4%)	27명(38%)	3명(4.2%)
	3		33명(46.5%)	3명(4.2%)	28명(40.8%)
	4			28명(42.3%)	26명(38%)
	5				11명(15.5%)

주. 음영 표시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집단의 수

www.kci.go.kr

표 3.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표

집단	인원(명)	비율(%)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의 평균점수			
			내적조절	확인된조절	내사된조절	외적조절
1. 확고한 동기집단	10	14.08	.90	1.20	-1.37	-1.31
2. 저하된 동기집단	28	39.44	-.47	-1.01	- .40	- .01
3. 갈등 동기집단	33	46.48	.09	.47	.70	.34
계	71	100	-.01	-.00	- .02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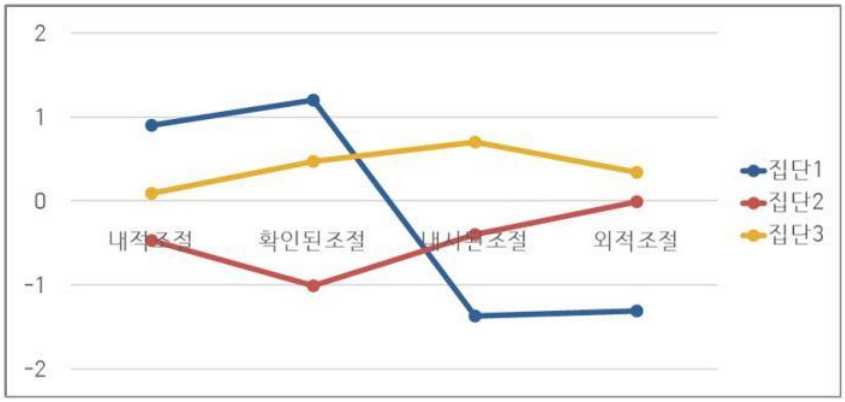

그림 1. 진로결정자율성 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의 4개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각각 내적조절 -.01, 확인된 조절 -.00, 내사된 조절 -.02, 외적조절 -.03이었다. 집단 1은 전체의 14.1%(10명)로 내적조절과 확인된 조절 동기 수준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내사된 조절과 외적조절 동기 수준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집단을 '확고한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의 39.4%(28명)로 외적조절이 평균보다 조금 높고, 나머지 하위수준인 내적조절, 확인된 조절과 내사된 조절 모두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에 이 집단은 '저하된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의 46.5%(33명)로 내적 조절과 확인된 조절은 평균보다 조금 높고, 내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평균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으므로, 이에 이 집단을 '갈등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 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남학생은 저하된 동기집단 17.6%, 갈등 동기집단 13.2%, 확고한 동기집단 4.4% 순이었고, 여학생은 갈등 동기집단 32.4%, 저하된 동기집단 22.1%, 확고한 동기집단 1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은 확고한 동기집단이, 고등학교 2학년은 저하된 동기집단이, 고등학교 3학년은

www.kci.go.kr

표 4.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1. 확고한 동기집단	2. 저하된 동기집단	3. 갈등 동기집단	계
성별	남	3명(4.4%)	12명(17.6%)	9명(13.2%)	24명
	여	7명(10.3%)	15명(22.1%)	22명(32.4%)	44명
	결측	-	1명	2명	3명
학년	고1	3명(4.3%)	1명(1.4%)	-	4명(5.8%)
	고2	-	7명(10.1%)	4명(5.8%)	11명(15.9%)
	고3	7명(10.1%)	20명(29.0%)	27명(39.1%)	54명(78.3%)
	결측	1명	1명	-	2명

표 5.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검증

변인	*M(SD)*			*F*	*Scheffé*
	1. 확고한 동기집단	2. 저하된 동기집단	3. 갈등 동기집단		
진로준비행동	.03(1.16)	-.25(1.07)	.23(.85)	1.85	-
결과기대	.51(1.04)	-.54(.80)	.32(.97)	8.22***	1>3>2
낙관성	.81(.62)	-.59(1.00)	.25(.82)	11.39***	1>3>2

주. ***p<.001

갈등 동기집단이 가장 인원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율성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그리고 낙관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분석 후 *Scheffé* 사후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결과기대(F=8.22, p<.001)와 낙관성(F=11.39,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기대와 낙관성 모두 확고한 동기집단, 갈등 동기집단, 저하된 동기집단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확고한 동기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보다 결과기대와 낙관성이 높았으며, 저하된 동기집단은 결과기대와 낙관성 모두 낮게 나타났다. 갈등 동기집단은 확고한 동기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결과기대와 낙관성이 저하된 동기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의 하위 요인들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이러한 잠재계층의 분류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및 낙관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진로결정자율성 잠재프로파일은 총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진로결정 동기 가운데 자율적 동기인 내적 조절과 확인된 조절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통제적 동기인 내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평균보다 낮아 '확고한 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확고한 동기집단은 전체 참여 인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인 10명(14.1%)이 속한 집단이었다. 이영주와 최해연(2020)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의 경우, '자율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의 집단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집단 간 특성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자율 동기집단보다는 확고한 동기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 집단은 진로결정이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진로결정과정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 집단은 내적 조절, 확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은 평균보다 낮고 외적 조절이 평균보다 높아 '저하된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인원의 28명(39.4%)을 차지하였다. 저하된 동기집단의 경우, 외적 조절을 제외한 전반적인 동기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는 이영주와 최해연(2020)의 연구에서 모든 동기가 낮아 '동기저하 집단'으로 정의한 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영주와 최해연(2020)의 연구에서 '동기저하 집단'이 외적 보상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저하된 동기집단'은 자율적인 동기 수준이 낮아 진로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외부 보상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집단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과 결정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남한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외적 조절 동기가 약간 높아 금전적 보상,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세 번째 집단은 모든 동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이지만 자율적 동기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통제적 동기는 평균보다 높아 '갈등 동기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인원의 33명(46.5%)으로 가장 인원이 많았다. 이영주와 최해연(2020)의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집단을 '의욕 집단'으로 칭하였으나 탈북청소년의 경우 진로 결정을 내릴 때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동시에 높을 경우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에서 내적 요인과 외부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양한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탈북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자극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들에서는(구본정, 2010; 박고운, 이기학, 2007; 최윤정, 구본정, 2010) 외적 조절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더라도 매우 미약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을 할 때 외부의 보상과 처벌 등 외적 조절에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주입된 조절 동기가 미숙한 진로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최윤정, 구본정, 2010).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 청소년과는 달리, 탈북청소년의 경우 외적 조절과 내사된 조절이 동시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청소년의 경우, 경쟁사회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외적 보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구본정, 2010;

www.kci.go.kr

박고운, 이기학, 2007; 최윤정, 구본정, 2010) 이러한 경쟁에 스스로 동기부여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내적 욕구)가 동시에 높다면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의욕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유를 원해 찾아온 남한 사회이긴 하지만 경쟁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이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탈북청소년에게는 외부 요인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성취감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집단의 탈북청소년은 국내 청소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내외적 요인을 골고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의 탈북청소년들은 내적으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이 집단의 탈북청소년 특성을 이해하고 이 집단에 해당할 경우 외적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 분류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고한 동기집단, 저하된 동기집단, 갈등 동기집단 등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동기수준에 따라 군집유형을 분류한 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본 이예진과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 조절형, 내적 조절형, 외적 조절형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이예진과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진로자율성 수준을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등을 척도로 한 Elliot과 Church(1997)가 개발한 성취목표 척도(Achievement Goal Items)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다수 연구결과들(김은영,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한주옥, 2004)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의 부분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은영, 2007; 한주옥, 2004)와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송현심, 홍혜영, 2010)로 볼 때 진로결정자율성 집단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건대, 탈북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동기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탈북이라는 인생에서 큰 고비를 넘었지만, 새로운 환경인 남한에서의 적응은 인생에서 다시 다가온 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들은 탈북 이후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다시 한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선뜻 앞으로 나가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진로 결정을 할 때는 부모의 출신 성분이나 경제력의 영향을 받아 왔고(정다운, 김병수, 2019), 북한의 억압적이고 명령적인 체제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왔기에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을 어렵게 느껴(정진곤, 2011) 남한 사회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수동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발전시키기는 버거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탈북청소년들이 탈북을 통해 큰 성취를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다시 심리적 두려움

www.kci.go.kr

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 타당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담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준비수준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 수준을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 분류에 따라 결과기대와 낙관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변인 모두 확고한 동기집단, 갈등 동기집단, 저하된 동기집단 순으로 결과기대와 낙관성 수준이 높았다. 이는 낙관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진로선택과정에서 높은 결과기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비관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진로선택과정에서 낮은 결과기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Jackson, Weiss, Lundquist, & Soderline, 2002)와 그 맥을 같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조절 수준이 높은 확고한 동기집단과 갈등 동기집단이 내적 조절 수준이 낮은 저하된 동기집단에 비해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스스로 진로에 있어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통제적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낮다. 확고한 동기집단의 경우, 결과기대에 있어 확실히 높은 결과기대를 보였고 갈등 동기집단과 저하된 동기집단 순으로 높았다. 이는 자율적 동기가 진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 후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외적 요인이 국내 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듯이,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탈북청소년들은 불안해질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해야 하거나 타인을 믿기 힘든 상황이 많아 문화적응과 학업적응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희정, 손은령, 2019). 탈북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험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김태동, 2010) 남한 적응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진로결정에 있어 장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응원이나 칭찬보다는 내적인 불안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낙관성의 경우, 자율적 동기가 높은 확고한 동기집단이 가장 높은 낙관성을 보였고 외적 조절이 약간 높은 저하된 동기집단이 가장 낮은 낙관성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내적동기, 외적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한건환과 민윤기(2007)의 연구에서 낙관성 상위집단이 내적동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낙관성 하위집단은 외적동기 점수에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자율적 동기가 높은 확고한 동기집단의 경우, 낙관성이 높은 반면, 외적 조절이 약간 높은 집단의 경우, 낙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된 탈북청소년들에게 외적 조절 요인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상담장면에서도 내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내·외적 갈등 상황에 대해

www.kci.go.kr

간과하고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담에서는 내 · 외적 동기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담자의 경우, 내적 동기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내담자가 경험하는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여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상충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자율성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 관련 연구는 드물 뿐만 아니라, 이 하위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 동기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그 유형을 분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동시에 높은 집단을 갈등 동기집단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어 설문지의 이해가 가능한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중국 출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추후 연구에는 중국어용 설문 등을 개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과정이 다양하고 한국 거주 기간, 학년 차,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환경적 요인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탈북과정에서 과다한 조사와 설문으로 인해 일반 연구자의 설문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우, 연구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탈북청소년의 국내 적응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참고문헌

강희양 (2020). 청소년용 계획된 우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3-12.

구본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재기 (2011). 범주형 혼합 모형의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의 평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보람 (2012). 계획된 진로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수, 강구섭, 김지혜, 안경식, 정재훈, 김선, 윤희성, 이설기, 김하람, 박성철, 임상혁 (201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10차년도 결과보고서. https://www.kedi.re.kr/khome/main/search/searchLst.do 에서 검색.

김태동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탈북 후기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9), 277-296.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

www.kci.go.kr

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언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 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도지완, 황명진 (2020).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경험 변화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169-190.

문희정, 손은령 (2019). 탈북청소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혁신연구, 29(3), 141-167.

박고운, 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2), 409-422.

박완성 (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41-143.

백연옥, 심혜숙 (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59-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1).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검색.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양난미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혜린, 고윤정, 김옥수, 박연미, 이혜란 (2017).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교사회복지, 39, 205-229.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 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855-875.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이영주, 최해연 (2020). 자기결정성이론에 기반한 성인 진로결정 동기의 측정과 동기유형 구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4), 431-459.

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전주연, 송병국 (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21(3), 171-200.

정다운, 김병수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29-59.

정영선 (2018).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일과 진로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0(2), 3-38.

정재경, 강민주(2019).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7(4), 485-498.

정진곤 (2011). 북한 이탈 학생들의 의식과 사

www.kci.go.kr

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4(1), 79-97.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조현섭, 채경희 (2019). 탈북 청소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6), 501-513.

주승현 (2020).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다문화와 평화, 14(3), 1-24.

청소년기본법 (2020). https://www.law.go.kr/LSW/unSc.do?query=청소년기본법#에서 검색.

최대석, 조은희 (2010). 탈북 대학생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2), 215-240.

최윤정, 구본정(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연구, 11(4), 1675-169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탈북 학생 통계 현황.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에서 검색.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 현황.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에서 검색.

한건환, 민윤기 (2007). 아동의 낙관성, 내외적 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관계성. 한국자료분석학회, 9(6), 3089-3101.

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9 한국직업전망. http://www.keis.or.kr/search.do 에서 검색.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유능감의 매개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은영, 강혜영 (2007).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8(4), 1485-1500.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Diemer, M. A.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Gagné, M., & Deci, E. L. (2005). Self-

www.kci.go.kr

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s, 13*(1), 77-97.

Herr, E. L. (2001). Career development and its practice: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3), 196-211.

Hirschi, A., Lee, B.,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13). Proactive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career behaviors: Investigating direct,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31-40.

Jackson, T., Weiss, K. E., Lundquist, J. J., & Soderlind. A. (2002). Perceptions of goal directed activit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A personal project analysis. *Journal of Psychology, 136*(5), 521-533.

Kim, S. Y., Chen, Q., Wang, Y., Shen, Y., & Orozco- Lapray, D. (2013). Longitudinal linkages among parent-child acculturation discrepancy, parenting, parent-child sense of alien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Chinese immigrant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00-912.

Levitt, M. J., Lane, J. D., & Levitt, J. (2005). Immig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in the first postmigration year: An intergeneration analysi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2*(4), 159-177.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s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4.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Muthén, L. K., & Muthén, B. O. (2002). How to use a Monte Carlo study to decide on sample size and determine pow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4), 599-620.

Patton, W., Bartrum, D. A., & Creed, P. A. (2004). Gender differences for optimism, self-esteem, expectations, and goals in predicting career planning explor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4*(2), 193-209.

Paixão, O., & Gamboa, V. (2017). Motivational profi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3), 207-221.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

www.kci.go.kr

Vondracek, F., Ferreira, J., & Santos, E. (2010).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in times of social change: New perspectives for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0*(2), 125-138.

원 고 접 수 일 : 2021. 12.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14
게 재 결 정 일 : 2022. 04. 1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2, 557-576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utcome Expectation, and Optimism amo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Based o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 Latent Profile Analysis

Jieun Lee **Sunim Shin**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us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utcome expectation and optimism by latent class. Participants were 74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ttending alternative high schools in Seoul, Gyeonggi, and Pusan.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MANOVA, and post hoc tests were also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utcome expectation and optimism by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typology. The results revealed that latent profil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strong motivation group', 'degraded motivational group', and 'conflicted motivation group'. Furthermore, there were differences in outcome expectation and optimism between groups, but not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latent profile analysi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utcome expectation, optimism

www.kci.go.kr